

2020년 11월 1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5편 1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5편 17절)

◎ 찬 송 / 588장(통307)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하박국 3장 17~19절

17.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 말씀선포 /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과학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습니다. 작은 바이러스의 공포는 일상생활을 무너뜨렸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으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우리를 우겨쌓고 있는 상황들로 인하여 현재의 우리들은 어쩌면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긴급하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 최악의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 본문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는 방금 목격한 환상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은 덜덜 떨리며, 뼈가 썩어 들어가는 듯 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이 사라지고, 가축은 자취를 감추는 극한 가난과 궁핍이 엄습해오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감사의 조건보다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며, 이 모든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요,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막다드리기 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코로나19의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한 걸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다고.. 성도에게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쩌면 더욱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관자요, 주권자 되시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최악의 상태에서도 소망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 하박국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의문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일어나 세상을 통치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로 시작합니다. 본문 1장 3~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겹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마침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높은 성루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 이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2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 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시며, 그 백성을 구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계속되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그 대적을 진멸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광경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선지자는 3장에 들어와 노래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영원한 속박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이제 곧 부흥케 되며, 성취케 될 것을 소망하며 선지자는 큰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처할 곳도 넉넉지 못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절박한 배고픔과 헐벗음과 공포만 있습니다. 다만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문을 믿고 소망 중에 큰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희망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라 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쁨이 솟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뿐 아니라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순간이 야말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간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까지도 합력해 선이 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3. 최악의 상태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 본문 17~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선지자는 극한 가난과 두려움,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감사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가난과 극한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넘어가게 하는 강한 발을 주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높고 높은 고난의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 높은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감사할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더욱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감사, 소망의 감사,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를 통하여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33장(통490)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 폐 회 / 주기도문